검단시론

신 정 현
〈점겸대 교수·정치학〉

민주화의 완성을 위해

지난 수년간 우리사회에서는 민주화를 향한 변혁의 시도가 전개되어 왔다. 이것은 과거 30여년간 지속되어온 권위주의를 종결시키고 새로이 민주적 정치질서를 확립시키는데 집중되었다. 이런 변혁의 과정에서 우리사회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 했고 또 셀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해야만 했다. 특히 젊은 지성인들이 우리사회의 민주화를 위해 치루어야 했던 희생은 감히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다. 이런 부정과 희생의 결과로 오늘날 우리는 대통령직선제에 의한 "문민정치"의 시대를 열게 되었다. 그러나 이것으로 우리가 원했던 민주화의 목표가 완전히 실현된 것은 아니다. 아직도 우리사회에는 전근대적인 봉건적 유산들이 남아있을 뿐만 아니라 반민주적 권위주의 요소들이 여기 저기에 산재해 있음을 간과할 수 없다.

본래 민주주의란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최선의 이념이요 제도로서 받아들여져 왔다. 이런 이유때문에 인류는 그들의 공동체생활의 기반을 민주주의에 근거해서 확립시키려고 노력해 왔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의 아테네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역사는 전체 인류역사에 비추어 볼 때 오히려 짧은 기간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 역사도 마찬가지이다. 해방후 현재진행사에서 민주주의 역사는 극히 짧은 것이었다. 오히려 대부분의 현대사가 권위주의의 독재질서에 의해 이어져 왔음은 주지하는 바와 같다. 독재에 저항해서 민주주의를 정취하려는 부정의 역사가 계속되었을 뿐이다.

그러나 그러한 투쟁의 결실은 아직도 충분히 거두어지지 않고 있다. 신정부가 들어선 이제 우리사회의 민주화는 '개혁'이라는 질긴적인 변혁과정을 거쳐 수구되고 있다. 민주주의는 결코 혁명을 통해서만 실현되는 것은 아니다. 대신 개혁적방법을 통해 그의 가치와 이념은 보다 더 깊이 있게 현실로 나타날 수 있다.

민주화를 위한 개혁은 비록 온건하고 점진적이며 기본적으로 체제내에서 추구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파급효과는 혁명의 그것과 맞먹는 것이어야 한다. 본질상 개혁은 과괴와 창조의 두가지 변혁과정들을 동시에 내포한다. 과거의 권위주의체제를 파시키고 대신 민주주의체제를 창조해 나가야 하는 것이 현재 우리사회에서 추구되는 개혁의 진정한 목표요 과정이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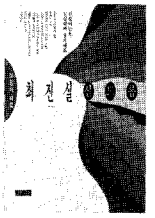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민주화는 적어도 세가지 수준들에서 부정적 측면들을 조명해 볼 수 있다. 첫째는 개인적수준이다. 우리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고 평가되고 있지만, 아직 민주주의 사회에 적합한 시민적미덕이나 덕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그들의 의식속에는 개체로서의 독립성 보다는 집단에의 의존성이 두드러지게 자리잡고 있으며 그들의 행태에는 여전히 권위주의적 속성들이 반영되고 있다. 그들에게는 출입적인 자기정체성이 약하게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비판과 참여의 미덕이 체질화 되어 있지 않다. "그저 좋은 것이 좋다"는 부자다적 무비판적 의식구조가 개인의 행태속에서 섭사리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이런 개성과 의식을 소유한 개인들이 사회내에 존재할 때 결코 뿌리를 내릴 수 없을 것이다.

둘째는 사회적수준이다. 우리사회는 지난 30여년간 산업사회의 건설을 지향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혈연 및 지연과 같은 전통적인 봉건적요소들에 기초한 사회적관계가 아직도 현저하게 유지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집단들간의 관계에서는 이익중심의 결사체보다는 봉건적 유대성을 강조하는 제일적조직들이 보다 더 강력하게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가제중심의 사회적관계가 상존하고 있어 능력본위의 합리적인 경쟁체제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인간이면 누구나 평등하다고 한다면 그들의 사회적관계에는 기회균등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그러한 원칙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공정하고 객관적인 사회적과정이 확립되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사회의 현실은 그러한 원칙의 적용과는 거리가 먼 곳에 있다. 독점과 야집이 만연되는 사회에서 어떻게 공정한 게임의 원리와 기회균등의 원칙이 실현될 수 있는가?

셋째는 국가적수준이다. 국가는 권력행사를 통한 통치행자의 기관이다. 민주주의사회에서는 국가의 통치기능을 위한 반력의 행사가 제도적으로 견제되고 제한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권력은 믿을 수 없는 것이며 적절히 제한되지 않는 한 악의 근원이 되기 때문이다. 반면 권력이 제도적장치를 통해 제한되고 비판될 수 있을 때 그것은 사회에서의 질서와 안전을 보장해 주는 유효한 수단이 된다. 따라서 국가권력은 분립되고 분권화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국가권력이 어느 한 개인이나 기관에 집중되어 있다면 이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사회에서 민주화를 향한 변혁과정이 아직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면 그의 완성을 위해 지성인들의 역할이 새삼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지성인들은 이념과 지식과 가치의 소유자들일 뿐만 아니라 이들을 현실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능력과 또 실천해야 하는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지성인들도 우리사회의 구성원들이기에 우리시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것에 결코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다. 오히려 지성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고 할 때 우리 사회의 민주화는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최진실 통해 본 문화비평서



서평 "최진실 신드룸" — 마정미 지음, 청하 펴냄

자본의 논리 따라서 일사성 조명
서구이론 도입해 한국 현실 분석

텔레비전의 스위치를 켜거나 끄는 행위는 단순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는 산업사회의 모든 행위가 포함되어 있다. 텔레비전을 만드는 노동이며, 유통시키는 구조, 그리고 소비하는 와중의 모든 문화들은 물론, 드라마나 광고를 제작하고 방송을 내보내는 텔레비전 안의 세계에서 벌어지는 일 등이 모두 우리가 드라마나 광고 등의 프로그램을 보는(소비하는) 순간 연결되는 것이다. 이것은 바만 텔레비전이라는 한정된 매체만이 갖는 특성은 아니다. 신문이고 라디오, 압구정동이라는 문화공간이 그렇다. 때문에 이시대의 논리구조를 생산관계가 아닌 소비관계에서 찾게 되는 것은 일정부분 타당성을 갖는다.

위의 말을 뒤집어 살펴보면 자본주의가 그 생산과 지배의 체제를 끊임없이 정당화하고 재생산하는 능력이 문화의 층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가하는 문제제기에 이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두가지 사항에서 마정미씨가 지은 '최진실신드룸'(청하출판사)은 결코 기법계보와 넘길 책이 아니다.

마정미씨가 최진실에 대해 한 권의 분량으로 글을 써낸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다. 최진실은 이미 이 시대의 문화현상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유가 그것이다. 우리는 최진실이 출연한 광고를 기억한다. 특히 그녀가 데뷔 초기에 출연한 "남편사랑은…"으로 끝을 맺는 광고는 기억의 정도가 더하다. 왜 그런가. 벌써 몇년이 지난 광고인데 왜 그 광고를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가. 우리들을 향해 매일 욕망의 눈웃음을 날려보내는 그녀를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최진실은 광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다. 최진실을 최진실로 만들고, 최진실답게 하는 것이 이 시대의 문화현상이고 미학구조인 것이다.

저자 마정미씨는 먼저 우리를 최진실의 세계로 안내한다. 최진실신드룸의 정체를 분석하면서 그녀가 걸어온 삶이 광고와 어떤 궁합을 이루며, 우리들에게 어떤 호소력을 지니는지 밝혀준다. 또한 그녀의 이미지 메이킹 기법, 그녀의 작품, '신실이'라는 가상의 세계에서의 주체무재현상, 최진실의 관능미 등을 전반부에서 분석하고 있다. 재미있는 것은 최진실은 관능적이어서가 아니라 비관능적이기 때문에 그녀의 인기가 더욱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이어서 마정미씨는 논의를 더 발전시켜 우리를 이 시대의 문화현상의 한 가운데로 데려간다. 가치의 전이가 일어나고 있는 곳, 뉴키즈의 공연장소와 전대협의 집회장소, 그리고 더 깊숙히 광고가 난무하는 도시공간을 우리에게 안내한다. 마정미씨가 최진실을 통해 우리를 안내한 종착지는 우리시대의 문화라는 이름이다. 그것은 자본의 논리를 따라서 일사성 조명하고 서구이론 도입해 한국 현실 분석하는 방의 문화와 자본의 고리가 향후 어떤 모습으로 상관관계를 맺게 될지 그 모습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과 그 냐관적 전망이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을 외미한다. 이러한 사항은 비단 '최진실신드룸'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현재 시중 서점에 나와 있는 대중문화비평서들의 대부분이 논의의 부재는 어느 정도 극복하면서도 전망의 부재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진실신드룸'은 스타 개인에 대한 조명이 아니라 문화현상으로서의 최진실에 대한 조명이라는 점, 대중문화의 내면을 한층 더 깊숙히 살펴볼 수 있다는 의미에서 유익한 책이라 볼 수 있다.

마정미씨가 인도하는 길은 우리가 쉽사리 이해할 수 있는 길은 아니다. 대중문화에 대해 마정미씨가 아무리 쉽게 기술했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이해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자본의 논리가 문화구조의 뒤에 도사리고 있다는, 우리는 일상성 때문에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화론에 대한 지식이 어느 정도는 있어야 쉽게 접할 수 있는 글이다. 나는 여기서 경희대학교의 독자들에게 최근에 발행된 알튀세르의 저서를 비롯해서 보드리야르, 르메브르, 들뢰즈 등이 쓴 저서를 읽기를 권한다.

이 성 수
〈출판저널 기자〉

오늘의 한·중관계 모색

'한·중수교 1주년 기념학술회의' 개최
아·태연구소 주최, 남개大 교수 초청

본교 아시아·태평양연구소(아태연구소)는 지난 9월2일과 3일 이틀에 걸쳐 본관4층 세미나실에서 '한·중수교 1주년 기념학술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 학교를 방문중인 중국 남개대학과 교수 6명이 함께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중국의 경제와 농촌문제를 비롯해 한·중 수교의 현황과 전망을 밝히는 글들이 발표되었다.

첫날에는 '중국 경제체제개혁과 발전(남개대 곡서대교수)', '중국 농촌경제 건설과 경제발전 모델(장향동 교수)', '중국 가격구조의 발전방향(박우성교수)', '중국인의 기본적인 기본적 의식구조(신용철교수)'등 중국의 현 사회상황과 중국인들의 의식에 관한 글들이 발표되었다.

먼저 곡서당(남개대 경제연구소 소장)교수는 발표를 통해 14년동안의 체제개혁의 주요내용을 요약하면서 "개혁경제체제로부터 시장경제체제로와의 병행으로 이행하고 있다"고 설명한 뒤 그러나 "신구체제간의 마찰, 시장질서의 혼란, 번부의 차이 등 불합리한 성장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향동(남개대·사회학과)교수는 천진도시와 향촌의 도시화 과정을 통해 중국의 농촌건설과 경제가 어떻게 상호 발전할 수 있는가에 관해 발표했다.

한편 중국인의 기본적 의식구조에 대해 신용철(문리대·사학)교수는 중화사상과 중국인의 역사의식, 변혁의식, 사회주의 의식으로 구분하여 이러한 사상이 중국인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발표했다.

신교수는 특히 중국의 사회주의 사상은 예기나 예운편에 나오는 대동사회의 사상에서 나왔다고 설명하면서 "우리는 역사속에 소중화의식(小中華意識)없이 당당하고 냉철하게 심리적으로 대응해야 함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정모(정경대·무역학)교수는 한·중무역의 전망에 대해 해서 견해를 밝혔다.

김교수는 "중국은 한국의 투자, 기술이전, 경영기술 등을 원요로 하고 한국의 수출시장 다변화, 자원의 안정적 공급, 노동집약적 산업의 효과적 해외이전 등에서 양국간의 경제협력의 여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동아시아 전통문화와 현대화"라는 주제로 발표한 이두만(남개대학 경제연구소)교수는 동아 각 민족 인민들의 물질적, 정신적 유산인 동아전통문화가 현대화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계승되었는지를 밝혔다.

둘째날인 9월3일에는 '한·중수교의 외교사적 의의와 현황 및 전망'에 대해서 이기종(정경대·정치학)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는데 이교수는 한·중수교의 의의로서 ▲이데올로기 대신 경제가 외교정책의 결정요인으로 중대되었으며 ▲동북아의 다각적 안보체제와 경제공동체로의 가능성이 모색되게 되었고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가능성이 고조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교수는 "중국은 과거사에 대한 정리와 패권지향적인 자세를 지양하고 동반자의 관계론의 발전을 추구해야 한다"며 한·중수교의 발전을 위한 결언을 내렸다.

대학인의 열정, 꿈, 지성 … 영풍문고에 있습니다!

초대형 서점, 대형 문구점, 대형 음반점, 컴퓨터광장, 문화행사장, 휴식공간까지 —

■ 모든 책이 다 있는 서점
■ 신학기 대학교재 및 원서교재를 완벽하게 갖춘 서점
■ 무수 제이든 주시 찾을 수 있는 가장 편리한 서점
■ 국내 최대의 종합문구점, 초현대식 음반점이 함께 있는 복합서점
■ 아늑하고 우아한 분위기, 효율적인 공간구성의 쾌적한 서점
■ 편리한 교통, 안락한 휴식공간으로 만족을 주는 매력적인 서점

■ 도서안내 399-5656, 399-5678
■ 예 매 전 399-5616, 399-5617

지하철 출구번호 지정 안내판에서

지성의 향기로 가득한 복합문화공간
영풍문고
서울시 종로구 시운동 33 Tel.399-5600